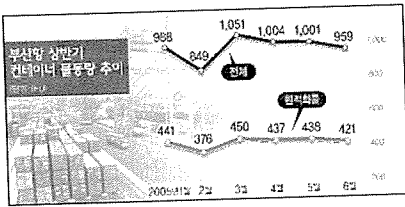




올들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둔화 상반기 처리물량 585만TEU로 3.9% 증가 6월 처리량 96만TEU로 0.3% 증가 그쳐



올 들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둔

부산항만공사(BPA)측은 중국의 물동량이 늘면서 대형화물선사들이 부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환적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당국과 부산항만공사는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신항만이 가동돼 항만서비스가 좋아지면 부산항의 물동량이 유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신항의 배후물류부지를 통해 물동량을 창출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항만으로 직접 가는 선사를 되돌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항만당국도 시인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해운경기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내년초 신항 개장으로 추가적인 물동량을 확보해야 하는 부산항의 화물유치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수 물량은 20피트 기준으로 95만9,000TEU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누계도 585만2,000TEU로 3.9% 증가에 머물렀다.

지난해 평균 1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이다.

올들어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 증가세가 이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제자리 걸음을 했고, 환적화물의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항에서는 전국의 수출입물동량의 80%를 처리하고 있다. 경기가 부진하면 곧바로 부산항의 수출입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부산에 몰리던 수도권 화물조차 인천이나 평택 등으로 분산되면서 부산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더욱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의 증가세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4월 이후 6월까지 3개월 동안 4%대로 푹 떨어졌다.

